



莊子의 遊悠人生 入門書(上)

莊子の 書는 부도덕한 書라 했다. 특히 치자와 권력자들이 경원하고 혐오한 書다. 그런데 오늘날 그의 書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얻고있는 이유는 불확실성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치는 인생입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쟁취하는데서 빛이난다. 어느 시대든 치자와 권력자들은 인간이 자유자재로 개성을 발휘하는 것을 불안해 왔다. 이는 질서의 파괴를 뜻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생명없는 질서보다 싱싱한 그리고 "생명의 요동이 보이는 무질서가 좋다"고 했다.

莊子の 서 제1장을 "逍遙遊"라 시장 명제하고 始章했다.

"逍遙遊"란 인간이 자유로이 살아간다는 뜻이며 이 "遊"라는 말은 日常的 삶에서 속박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삶"의 방법을 표현한 것이다. 우주 천지에 자기를 맡기고 만물의 생성변화에 따라 소요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의 존재라고 했다.

오 순 근
(한 학 자)

인간이 태어 날때 목적이 있어 태어난것이 아니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어찌다 태어나 성장하고 사망의 길을 가는 단 한번 밖에 없는 "나"라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하듯이 남들도 똑 같다. 그래서 "내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나는 내가 하는 한 자유이며 자기 인간성을 갖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사는 길을 "悠"라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생의 삶을 "遊" 와 "悠"라는 언어로 표현했다.

인간이 인간자체를 너무도 망각하고 있어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밑바닥으로 부터 찾고, 표현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분방한 비유로 인간본성을 파헤쳐 귀중한 "나"라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칭하여 "遊"라하고 이 세상 부질없는 가식을 버리고 진정한 "삶"을 마음껏 느끼어 "悠悠"히 산다는 것을 悠라 하여 이 遊와 悠를 "삶"의 극치며 진리라고 했다.

좋은 음식, 좋은 소리, 어여쁜것 등을 즐기고 놀고 싶어하는 인간본성을 "悠"라 할 수 있고 일체를 초월하고 영원한 삶의 길을 가는것을 "悠"라 할 수 있고 遊는 悠한 것이고 悠는 또한 遊에서라는 "인간삶"의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허무하면서 유실(有實)하고, 유실하면서 허무한 것, 허무의 실상 그 자체도 "虛"라는 것이다. 참으로 철학적 종교적 실파다.

이러한 허실을 논하기 위하여 孔子와 그의 弟子들의 실존인물을 설정하고 신랄하게 孔子의 유교적 가면을 벗겨보려 그는 작품으로 이를 구사했다.

그는 孔子가 성인군자론을 치자에게 교양서로, 치자론을 통치법으로 가르쳐 인간의 본성,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모든 즐거운 일을 치자 자기 혼자만 즐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가르친 참으로 부도덕한 위선자라고 매도하여 당시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 현실적 설(說)을 우화식으로 비유풍자 했다.

인간은 산다는데 대하여 목적을 가질 수 없다. 목적을 갖게 되니까 제약과 조건에 속박된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살고 있다는 그것이 유일의 목적이며 오직 "살기 위해 산다"는 것이 유일의 목적이며 오직 "살기 위해 산다"는 것에 불과하다. 만일 목적이 있다면 삶은 그 목적의 노예가 될 뿐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의 자기의 삶이 목적이 있어 산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살아 왔다는 것이다.

직업은 살기 위해 갖는 것이고 직업을 위해 사는것이 아니다. 그러니 직업은 직업, 삶은 삶으로, 귀중한 삶을

자기본성대로 본성을 추구해가며 살아야 한다. 자기 삶과 직업을 혼동말고 자기마음 먹는 대로 자유롭게 신나게 遊로 느긋하게 悠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다.

장자연구가 福永光司氏(동경대학 교수)는 이 세상의 상식적이며 협소한 가치, 우스꽝스러운 조그만 존재들을 흉소하고 인간들이 세속적이며 무관한 것을 유용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세상의 우를 깨우치게하고 풍부한 창조적인 충만한 인생을 목표로 높이 비상하는 그의 탁월한 예지는 예술적이며 분방한 경구, 신랄한 풍자와 역설, 경쾌한 유모어등이 가득찬 저서내용은 진정 예술이며, 드라마틱한 구성, 무용적인 리듬있는 필력은 시적이기도 하다"고 찬(讚)했다. 그래서 그는 사상가인 동시 철학자이며 작가며 시인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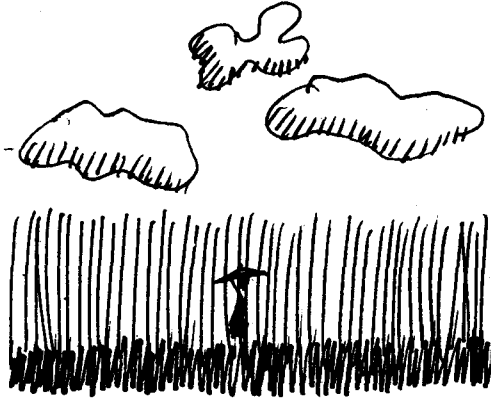
그는 "천하대감"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도척이라는 대도의 입을 빌어 孔子를 호되게 풍자했다.

"네 놈이 魯國의 僞君子 孔子놈 인가. 너의 행위야 말로 중죄받아 마땅하다. 신묘한 말로 문왕, 무왕을 추켜대고 잘난체한 복장으로 유해무용한 용설(元冑)로서 세상을 현혹시키고, 일도 안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네 놈 마음대로의 기준으로 시비선악을 논하여 제국의 군주들을 속이고 학자라는 놈들을 몰아놓고 효행이다. 어찌다 창도하니 네 놈이야 말로 왕후귀족이 되고 싶어 이런것을 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나. 너 같은 세상의 동물은 내 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네놈의 간을 내 밥상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어여쁜 것을 보고 싶고 좋은 음악 듣고 싶고, 맛있는것 먹고 싶고 평안이 살고 싶고 백세천세 살고 싶다. 그러나 그실 질병과 걱정근심 없이 진정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날이 한달이면 몇날 되는가. 생각해 보라. 우주는 유구한데 생명은 유한하다. 이 유한의 인생을 유구한 우주에 비한다면 인생이란 준마가 일순에 지나가는 순간이다. 이 일순의 인생도 다 할줄 모르는 자가 무슨 도니 진리니 하는가. 네놈이 두번 다시 아는체하면 입을 찢을 거다. 네 주장이란 인간성과 인간본성을 배반할 작언이다." 이말을 듣고 孔子는 풀이 죽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썼다.

그 중에 "누구도 어여쁜것이 좋고 좋은 음악 맛있는 것 먹고 싶고 편안히 쉬고 싶다. 그런데 이 모든것을 저버리게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냐"고 한 말은 시어(詩語) 같기는 하다고 했다.

그런데 힘 없는 보통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찌 사는것이 좋은가하는데 대하여 그는 권력자와 보통인간의 삶을 이렇게 말했다.

권력자는 부하들이 자유롭게 사는것을 나태로 본다. 부하들의 유락을 퇴폐로 지탄하지 않고는 조직유지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대중들로서의 유락은 생명의 회복을 뜻하고, 유락으로서 권력의 감시에서 도피하고 싶어하며, 권력을 비판하려하는 생존력이라는 것이다.



욕망없는 생이란 있을 수 없다. 좋은것, 어여쁜것을 즐겁게 느끼는 일은 생명의 약동이며 발전의 증거라고 했다. 그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손상되면 이는 생명의 정체며 분열 될때는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 고로 생명을 즐겁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며, 천하와 국가는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쾌락이 人生的 전부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욕망이란 삶의 성장이고 욕망이 없으면 생도 없다고 하여 현실공정을 한것이다. 고로 금욕이란 생명의 상실이며 진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살기 위해 조직속에서 생활하지만 때로는 타인을 비판할때도, 부러워 할때도, 거짓말을 해야 할 어찌할 수 없는 때도 있지만, 험뜯는자를 원망할것 없고 오직자기 본성, 자기나름의 삶으로 자유롭게 遊, 자기 본대로悠悠히 살면 된다는 것이다.

창조도 이 遊의 자유정신에서 나온다. 쾌락과 자유가 "遊"精神의 본질이기 때문에 "遊"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창조성본질 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성의 삶이야말로 인간을 맑게 하고 활발하게 한다는것은 지당하다. 유락과 자유를 구가하는 인간본성이란 정신의 충만을 뜻하기 때문이다.

창조나 유락은 忘我的 경지가 遊의 극이라 했다. 세상 평판에 관심 없고, 잘하겠다든지 바란다든지, 무엇이 된다든지 하는등의 의식이 없는 무아의 경지가 인간 천성

이며 인성과 자연과의 일체를 뜻 한다고 했다.

이 세상은 불확실성 사회라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미래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불확실과 불인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역으로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언제나 불안의 도전을 받고 생존하지만 그불안이란 자기 마음가짐의 문제이며 자기만이 이 不安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불안이란 자기만의, 것이며 자기 이외의 어떠한 힘도 제거 할수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문명과 인간성 회복도 예고했다.

1. 문명은 인간성을 상실 시킨다.
2. 지식이란 때로는 인간답게 사는데 해가 될 수 있다.
3. 인간은 태어 나면서의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4. 현실사회에 등을 돌리지 말라.

고로 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이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면서 遊의 사상을 잊지 말고 마음의 순수를 지키고 자유로운 삶으로 유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돈"(카오스)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사상은 현실을 직관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인간이란 공자가 말 하듯이 성인군자식 삶으로는 생명의 상실 뿐이라고 했다.

"인간은 누르면 굴 하고, 추겨주면 올라붙고 그리고 고뇌 한다. 인간성이란 유연하면 剛強한것도 연화 시킬 수 있고, 일체 만물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작화(灼火) 같은 마음도 되고, 그 차가움은 응수(凝水)와 같고 그 마음의 빠름은 이 우주를 두 새바퀴를 돌수 있고, 그 마음이 동하면 천공/높이 날 수 있고, 그 마음이 분방하면 제약할 수 없는 불가사의의 길을 간다고 했다. 이것이 인간의 천성이자 마음이다.

유유한 자연을 보라. 나로 하여금 나를 흠뻑히 즐기다 보면 그 즐거움이 끝 나기도 전에 슬픔이 오고, 다시 애절함이 오고, 이 슬픔과 애절이 가기 전에 또 끊임 없는 도전이 온다.

이래서 人生을 역여(逆旅)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것을 "혼돈"이라 했다. 이 混沌을 사랑하라는 특이한 철학을 만들었다. 이 혼돈을 사랑 한다는것은 인간이 사회질서에서 해방된다는 逆說로도 해석된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된자 만이 행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凡愚도 잘 살 수 있다는것을 力說하고 있다. <계속> **양계**